'급식 파동' 광주 4개교 위탁체제 유지 배경은?

직영 노하우 없고 시설자금 부담

예산 지원시 직영화 전환 검토
일부 "위탁이 더 안전" 의견도

CJ푸드시스템에 학교 급식을 위탁해온 광주지역 5개 학교 중 4개교가 이번 급식 중단 파동에도 당분간 위탁 급식 체제를 유지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푸드시스템의 급식 사고로 급식이 중단됐던 학교는 광주 수피아여고, 인성고, 보문고, 숭신공고, 숭의중 등 5개 학교. 이 중 수피아여고는 CJ푸드시스템의 계약파기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영양사 및 조리사 모집공고를 내고 이르면 7월부터 직영으로 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인성고는 지난 24일 CJ푸드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역 업체인 리푸드시스템과 새로 계약을 체결해 26일부터 위탁 급식을 하고 있다. 보문고, 숭신공고, 숭의중도 조만간 업체를 새로 선정해 위탁 급식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4개교가 위탁 급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도 다양하다. 인성고는 직영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의 시장조사 및 검토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럴만한 인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학년 도중 갑작스런 급식 체제 전환은 학사 및 진학지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당분간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성고는 그러나 사회 여론이 직영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동의와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보문고는 직영 전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급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내년 2월말까지 신규 업체를 선정해 위탁 급식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학기 중 담당자 연수 및 교육을 해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숭신공고와 숭의중은 현행 위탁급식이 직영 급식보다 더 안전하고 식단의 질도 좋은 것으로 판단돼 위탁 급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위탁 및 직영 운영 여부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 또는 자문(사립)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278개 학교 중 28개 학교는 위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을 외부에서 만들어 학교에서 배식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은 대성·진월·송원초, 무등·지원·광산·송원·송원여중, 송원·송원정보·경신여고 등 11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건물 신축이나 이설이 끝나면 '교내위탁급식' 또는 직영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숭의·비아·전대사대부·진흥·동성·동성여중, 석산·인성·수피아여·보문·숭신공·숭덕·동일전자정보·전대사대부·진흥·동성·광주여상고 등 급식소를 갖추고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교내 위탁급식' 학교 17개교는 직영 전환을 위해 외부업체와의 계약해지, 시설보수 및 급식기자재 구입을 위한 1억~2억원의 교육예산지원 등이 선행돼야 해 당장은 힘들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의 경우 직영 전환을 적극 요구할 수 있지만 사립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구해도 올해에는 관련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야 겨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투쟁팀'(집행위원장 박형모)이 27일 광주시 동구청을 방문, 연금 개정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 대부분

세균·질산성 질소 등 오염

전남 기준초과율 8.5%

광주·전남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대부분이 일반세균·대장균·질산성 질소 등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조사 대상 4천760곳 중 230곳(4.8%)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상·하반기 모두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33곳으로 나타났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230곳 중 일반세균 오염이 32%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질산성 질소 24%, 염소 13%, 대장균 6%, 유기용제인 트로클로로에틸렌(TCE) 6% 등이며 나머지는 6가 크롬·카드뮴·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 지하수 기준 초과율은 4.1%, 농어업용 3.7%, 공업용 2.8% 등이며 이 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천452곳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43(2.9%)곳으로 주로 일반세균·대장균·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됐다.

지역별 기준 초과율은 오염 우려 지역의 경우 인천(15.1%), 전북(14%), 경북(12.7%), 서울(10.1%), 전남(8.5%), 경기(8.3%)가 일반세균 등에 의해 크게 높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서울지역 4개교 급식사고 설사환자 324명 추가발생

서울지역 중·고교 4곳에서 급식사고에 따른 설사 환자 32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랑중학교에서 급식사고에 따른 설사환자가 187명이 발생했고 22일에도 광영고와 광영여고에서 각각 36명과 80명의 학생이 설사 증세를 호소했다. 광영고 학생 5명은 설사로 입원했으며, 홍대부여고에서도 21명의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

중랑중학교는 동원캐터링이, 광영여고와 광영고는 SF캐터링이 각각 위탁급식을 맡고 있다. 홍대부여고는 문제가 되고 있는 CJ푸드시스템이 위탁 급식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대 총장 선거 장만채 교수 1위

순천대 장만채(48·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사진) 교수가 제5대 순천대 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1위로 선출됐다.

장 교수는 27일 열린 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2차 투표에서 201.5표를 얻어 115.8표에 그친 최주호(56·농업생명과학대학 산업기계공학과)교수를 누르고 1위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는 장교수와 최교수 외에 한상욱(51·사범대학 사회교육과)교수와 송영무(52·사범대학 수학교육과)교수 등 4명이 출마했다.

장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대 전자계산소장, 자연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대는 9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총장 후보자로 1, 2위 득표자인 장교수와 최교수 등 2명을 추천하며, 총장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교사 아내·의사 남편 배우자로 제일 좋아
고려대 신입생 선호도

대학 신입생들은 남자의 경우 배우자로 교사, 여자는 배우자로 의사를 가장 선호했다.

27일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발표한 '2006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1위는 교사(39.4%), 2위는 공무원(11.3%)이고 여학생은 의사(17.6%)와 공무원(13.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를 불문한 전체 배우자 직업 선호도에서는 교사(27.7%)가 1위에 올랐고 공무원(12.1%)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10.8%) 순이다..

혼전 순결과 관련해 남학생의 68.7'%와 여학생의 53.1%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55.5%와 여학생의 37.9%가 '마음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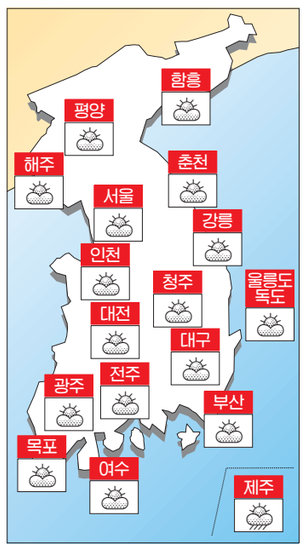
햇님은 구름뒤 숨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6월 28일 (음 6월 3일) ◇전국날씨

날씨

광주	구름 많음	20~27℃
목포	구름 많음	22~28℃
여수	구름 많음	20~25℃
완도	구름 많음	20~27℃
구례	구름 많음	21~29℃
해남	구름 많음	20~28℃
장흥	구름 많음	19~28℃
고흥	구름 많음	19~27℃
순천	구름 많음	20~29℃
영광	구름 많음	21~29℃
진도	구름 많음	20~27℃
전주	구름 많음	20~29℃
남원	구름 많음	20~29℃
정읍	구름 많음	19~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4:05 15:49 썰물 09:22 21:09
여수 밀물 10:31 23:09 썰물 04:40 16:35

▲해뜸 05:20 ▲해짐 19:51 ▲달뜸 07:22 ▲달짐 22: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목)	30(금)	7/1(토)	2(일)	3(월)	4(화)
날 씨						
최저/최고	20/24	20/24	20/26	21/29	21/27	21/28

월급 천원미만 떼어 청소년 돕기
시교육청 '千未운동' 참여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내달부터 직원 월급의 천원 미만을 떼어서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이른바 천미(千未)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미운동에는 본청 직원 260여명, 동·서부교육청 각 100여명 등 500명 가량이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천미운동으로 한달 25만원 가량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YMCA와 YWCA, 흥사단, 삼동 청소년회 등 광주지역 청소년 사회단체 주도로 벌이고 있는 천미운동에는 광주시와 일부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어른에게 안들리는 벨소리 나온다
LGT '틴 벨'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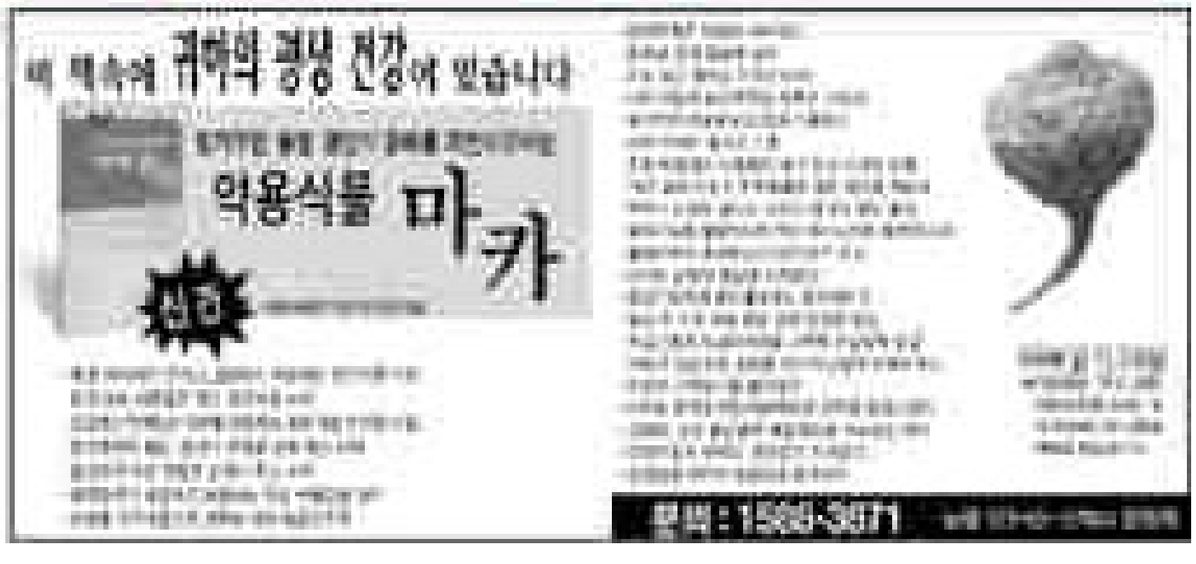
어른들에게 안 들리는 벨소리가 있을까?

10대 청소년의 귀에만 들리고 30대 이상 어른들은 들을 수 없는 벨소리가 나왔다. 벨소리로 '신세대'와 '구세대'가 구별되는 셈이다.

LG텔레콤은 27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업체 블루엠과 제휴, 국내 최초로 10대 연령층만을 겨냥한 '틴(Teen) 벨' 서비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1만7천Hz의 주파수대를 사용, 20대 후반 청력이 떨어진 성인들의 경우 벨소리를 잘 들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 휴대전화 벨소리를 성인이 듣지 못하는 것은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귀는 최저(40-50Hz에)에서 최고(2만Hz)사이의 소리를 탐지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200Hz~8천Hz의 주파수대에서 이뤄진다.

대략 20대 후반부터는 청력이 떨어지고 중년이 되면 노인성 난청(難聽) 증상이 시작돼 이보다 높은 1만7천Hz대의 고음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용한 서비스다.

LGT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방법은 무선인터넷 이지아이(ez-i) 접속 후 벨 소리를 내려받으면 된다. 곡 당 정보이용료는 900원(통화료 별도)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